

한라포커스 변곡점 맞는 제2공항 갈등

갈등해소특위 활동 본격화... '공론화' 향방 주목

제주도의회, '공론화' 빠진 특위 구성·운영 돌입
6개월간 활동... 찬반 아우른 방안 제시가 관건
국토부·국회·도정 향해 협조 촉구... 귀추 주목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찬반 갈등 국면이 새로운 변곡점에 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한 특위가 내놓을 갈등 해소 방안이 문제 해결 국면에 향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손실된 결의안... 첨예한 갈등 조정=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제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27명, 기권 10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해당 결의안 제명은 '도민공론화 지원'이 빠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됐으며, 입부의 범위도 당초 결의안에서 '속의형 도민공론화'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 회기에서 의회운영위가 한 차례 심사보류하는 등 결의안을 둘러싼 의회 내 찬반갈등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라는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며 일단락된 셈이다.

▶'공론화' 빠진 특위 활동 돌입='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태석 의장 추천으로 7명의 의원(강민숙·강성의·고현수·박원철·조훈배·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장영 교육의원)이 선임되면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박원철 위원장과 조훈배 부위원장을 내세운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등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갈 길 먼 특위... 공론화 등 실현 여부 주목=당초 결의안에서 '공론화'가 빠진 가운데 지역사회의 시선은 특위가 향후 공론화를 포함해 어떤 방식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할지 도출될 결과로 향하고 있다. 하지



황금물길 찾아 떠나는 가을산행 모처럼 청명한 하늘이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동안 햇살도 제법 따스하다. 중산간에선 황금빛 군락을 이룬 억새들이 탐방객들을 유혹한다.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병악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이 가을산행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만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고, 제주도정이 공론화 불가 및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위 구성과 관련 의회 내부와 지역사회의 갈등 여진 등은 특위 활동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지방자치역사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역 현안을 스스로 풀어내는 지방의회가 되겠다"면서 그 과정에

국토부와 국회, 제주도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의회가 나서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토부는 도의회가 도민 의견수렴이 끝날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들을 연기해주시고, 국회도

내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 감액조치나 강력한 부대조건을 통해 도의회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월 도정을 향해서도 도민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른기자 ejoj@ihalla.com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인플루엔자 주의보
질병관리본부, 15일 발표

질병관리본부가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증상은 35℃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10월 20~25일 1000명당 4.5명이던 것이 11월 3~9일에는 7명으로 늘면서 유행기준인 5.9명을 초과한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거주 지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0.3%, 임신부 28.4%,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접종 및 감염자 격리 등의 예방관리에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건강관리와 함께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제주 호텔 '등급' 결정 기준 강화

제주도, 전부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등 추가

내년부터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 방문객 126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

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수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객실·욕실·복도·계단·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종사원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추가 등이다.

이와 등급결정이 보류돼 재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요원 수를 2배로 늘리며,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1~3성급은 불시평가)하고,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단 구성 및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등급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등급결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주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원희룡 지사 '제2공항 특위' 입장 밝힐까

제주자치도의회, 18일부터 사흘간 도정질문 돌입
최대 쟁점 '제2공항 건설' 따른 道 입장 관심 집중
대규모 개발사업·일자리 등 지역 현안 대책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도정질문에 돌입한다.

대규모개발사업과 1차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이 촉구될 예정인 가운데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구성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에는 첫 날(18일) 양영식·문경운·부광남·강성균·김경미·안창남 의원 등 6명, 둘째 날(19일) 이승아·임상필·오대익·현길호·오영희·김용범 의원 등 6명, 마

지막날(20일) 이경용·조훈배·강충룡·정민구·강성민·송창권·좌남수 의원 등 7명이 나선다.

지난 15일 공개된 도정질문 요지를 보면 도정질문 첫날에는 제주 시·오라관광단지와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추진, 꽃자왈 보전, 주민추천 읍·면·동장(공모직위) 추진 의지 또는 개방형 직위 지정 추진, 제주도 립국약단 설립 의지, 장애인 권리 보장,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대책,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의지를 비롯해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묻는 질문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또 최근 선거공신 임명 및 보은인사 논란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예정됐다.

이밖에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대책 방안, 1차산업분야 현안에 대응한 예산 반영과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방안, 민선 7기 일자리정책의 기대와 우려,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Free Island: 탄소없는 섬) 2030' 프로젝트의 명암, 동물테마파크 관련 주민갈등 문제, 대규모개발사업과 도민상생방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 계정 축소에 따른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오른기자

▶▶ 기획 7면... 한국해녀를 말한다 ⑦전남 여수시 금오도

2019 제주김녕국제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이
제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장하겠습니다.

제주김녕풍력발전
Jeju Gimnyeong Wind Powe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대표이사 **강 상 응**